

6·25전쟁과 영국의 역할

元 泰 載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1. 머 리 말
2. 전후 영국의 외교정책 기초
3. 영국의 6·25전쟁 개입
4. 중국의 개입과 영·미 논쟁
5. 휴전회담과 포로문제
6. 휴 전
7. 맺 음 말

1. 머 리 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화요일 아침 11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영국수상 관저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비상 각료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나 참석한 각료들 중 한국이 극동지역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행히 배석했던 관리들 중 한 사람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between

China and Japan)' 있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 설명했다.¹⁾ 이 날 각의에서는 토론 끝에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미국의 정책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미국주도의 유엔결의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영국은 6월 30일, 극동함대의 일부인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3척, 호위함 4척을 한국으로 파견하였으나, 영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력의 분산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해군력이나 지상군의 파견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7월 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결의안과 7월 14일의 유엔 사무총장(Trigve Lie)의 요청,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 영국 국방위원회는 7월 24일 여단규모의 지상군 파견을 결정했다. 그 후 한국전 상황의 악화와 미국의 요구로 다시 파병 일정을 서두르게 됨으로써 홍콩주둔 제27여단이 8월 29일 부산에 도착해 즉각 대구전투에 투입되었다. 이어서 9월에는 증강된 해병 1개 중대가, 그리고 11월에는 29여단이 본국으로부터 도착하여 1950년말에는 22,000명의 영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다.²⁾ 이들은 1951년 여름 이후 영국이 주도하는 영연방사단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참전 16개국 중 미국 다음의 규모였다.³⁾

그러나 영국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도 한국과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거의 없었다. “만일 전쟁이 나기 전인 1950년 2월 새해 예산 편성시 영국 해군성이나 육군성에 근무하는 참모장교가 영국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조약에 의한 의무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1) Anthony Farra-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2 vols.(London: HMSO, 1990), 1: 1.

2) 역사적으로 영국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된 것은 6·25전쟁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군은 1883년 한영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직후인 1885년 4월부터 1887년 2월까지 2개월 동안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견제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바 있었다.

3) 영연방사단은 영국군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 뉴질랜드군, 인도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단급 이하 체대가 이렇게 많은 나라 군대로 이루어진 예는 없었다. C. N. Barclay, *The First Commonwealth Division: The Story of British Commonwealth Land Forces in Korea, 1950-1953* (Aldershot: Gale and Polden, 1954), p. 53.

있는 한 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면, 그는 아마도 정신병원에 보내졌을 것⁴⁾이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 해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그만큼 영국정부와 군 수뇌부에게는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였던 것이다.

영국의 한국전 개입은 당시의 냉전체제와, 영국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the special relationship)’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 영국은 정책 결정자들은 두 가지 목적, 즉 공산주의 공세 저지와 영·미동맹 강화를 위해 6·25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영국도 북한의 공격은 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미국은 6·25전쟁을 통해 영국이 ‘소중하면서도 예리하게 비판하는 동맹(a valuable but trenchant ally)’⁵⁾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튼 그들의 참전 결정은 영국과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 결코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이후 3년간 영국은 한국에서 싸웠으나, 그들의 커다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한국의 희망이나 이익을 경시하는 등 한국을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다.⁶⁾

6·25전쟁의 전투사적인 측면에서의 영국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쟁수행과정,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전쟁전략에 미친 영국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Farra-Hockley, *Korean War*, 1: vii.

5) *Ibid.*, p. viii.

6) Callum MacDonald, *Britain and the Korean War* (Oxford: Basil Blackwell, 1990), p. 5.

2. 전후 영국의 외교정책 기조

1945년 이후 애틀리(Clement Attlee) 노동당정부는 소련의 팽창을 우려하여 미국과의 밀접한 동맹관계를 향후 영국의 안보와 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했다. 그것은 나치독일과의 항쟁에서 미국과의 정책적 ‘혼연일치(mixed up together)’를 국가존망의 핵심으로 인식했던 처칠 전시내각의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처칠은 전시 소련과의 대동맹(grand alliance)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의도를 처음부터 불신하였으며, 1945년 포츠담회의에서도 소련에 양보하지 말도록 미국을 설득했다. 처칠은 노쇠한 영국이 붕괴된 히틀러제국을 대신해 나타난 소련을 단독으로 상대하도록 놔두고 미국이 다시 과거 고립주의로 복귀하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루즈벨트는 소련과의 협조에 기초한 전후 국제질서 구상에 치중하였다.

1945년 처칠의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이러한 영국의 외교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1980년대 연구들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서방측에서 가장 먼저 대응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처칠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애틀리의 노동당 정부, 특히 외상인 베빈(Ernest Bevin)에 의해 이어졌다. 1946년 말 루즈벨트의 후계자였던 트루먼(Harry Truman) 때 미·소간의 불화가 깊어짐에 따라 이런 접근방식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냉전이 심화될수록 애틀리와 트루먼의 관계는 비록 처칠과 루즈벨트의 관계만큼은 못했지만 그 어느 나라 정상들보다도 가까워졌다. 베빈과 많은 영국 관리들은 미국을 ‘선하지만 경험이 없어서 국제정치경험이 더 많은 영국의 지도가 필요한 거인(colossus)⁷⁾’으로 간주했으며, 대서양 동맹은 영

7) *Ibid.*, p. 3.

국의 경험과 미국의 힘을 합치는 것 의미했다. 베빈은 미국의 고립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하여 1948년 베를린 위기 때 영국의 공식 동의를 없이 미국 전략 폭격기를 영국에 배치하는 것까지도 허용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베빈은 1949년 나토 결성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유럽 방어에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분야 즉 원자탄 개발에서만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1945년 후에도 미국의 핵 독점으로 인해 핵연구분야에 동참하는 것이 거부된 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나, 영국의 핵 실험은 1952년 10월 까지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경 노동당 정부는 경제·정치·군사 문제에 있어서 어쩔 수없이 미국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48년 런던 주재 미국대사인 더글라스(Lewis Douglas)는 영미간의 단결이 그 이전 어떤 평화 시 보다는 더 강화되었지만 그 '특수 관계'란 동등한 파트너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인들은 1938년 뮌헨에서의 히틀러에 대한 양보가 전체주의 체제의 공세를 부추겨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공세가 초기단계에서 강력하게 응징되지 않는다면, 스탈린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지역에서 또 다시 도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다.⁸⁾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엔을 통한 집단제재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히틀러의 축출이 5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한편, 국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겨우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영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냉전 초기 유럽과 중동에 있었으며,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였고 극동지역은 맨 나중이었다. 영미관계도 유럽에서는 매우 밀접했지만,

8) Farra-Hockley, *Korean War*, 1: 203.

상대적으로 극동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더구나 외상이던 베빈에 따르면, 미국은 1945년 이후 이 지역에서 몇 번이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으면서도 아직도 ‘제멋대로(a law unto themselves)’하고 있었다.⁹⁾

1950년 1월 영국은 홍콩의 안전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택동의 중국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승인했다. 베빈은 새로운 중국은 공산주의 보다는 민족주의 색채가 더 강해,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며, 또 그럴 경우 중국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좀더 온건한 정책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영국은 인도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아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문제에 관해 미국에 대해 조언해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다.¹⁰⁾ 베빈은 인도가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영연방의 단결이 유지되기를 강력히 원했다.

영국 외교당국은 워싱턴당국이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정부를 처음부터 불신한 공화당 우파들이 조성한 국내정치적 압력 때문에 장개석 정부를 포기하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믿었다. 반대로 많은 미국인들은 영국의 정책은 런던 금융가와 노동당 좌파들 간의 불순한 동맹의 산물이라고 간주했다. 중국에 대한 영·미간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전쟁의 발발을 둘러싼 주요 마찰요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1949년 말 경부터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처 방안에 있어서는 영·미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런던에서는 인도차이나의 함락은 이 지역에서 도미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1948년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전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말레이 반도에서의 영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1950년 초에 이르러 워싱턴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영·미 양국은 이 지역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 시작했다.

9) MacDonald, *Korean War*, p. 11.

10) *Ibid.*, p. 12.

그러나 극동지역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 지역에서의 영국의 우선순위는 일본과 국제적 평화조약을 추진하고 점령정책은 미국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베빈은 1945년 모스크바협정에 서명했지만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치 문제에 직접 끼어들기를 회피했다. 외무성도 신탁통치문제와 한국의 자치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영국 관리들은 때때로 미국의 대화 부족을 불평하곤 했지만, 사실은 지리적으로 소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지역에서 미국이 홀로 행동하도록 방관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한반도 분할에 대해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영국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맡기는 것은 미국이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개입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체면건지기 방안(a face-saving formula)’으로 받아들여졌다.¹¹⁾

그러나, 1949년 9월에 소련이 원자탄 실험에서 처음으로 성공하고, 이어서 한 달 뒤 중국에서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자, 트루먼 행정부도 아시아에서 더 이상 어떤 국가도 공산화 되도록 방관할 수는 없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냉전에서 주도권을 잃고, 또한 핵(원자탄)독점이 깨어짐으로써 공산주의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결의가 의심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50년 초에는 새로운 봉쇄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영국의 6·25전쟁 개입

북한군이 38선을 전면 도발하자 미국은 6월 25일 즉각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했으며, 마침 공산화된 중국을 중국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항의로 소련이 안보리에 출석치 않음으로써 대북비난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 요구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되었다. 이어서 6월 27일에는 유엔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국이 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원조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11) Peter Low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ondon: Longman, 1986), p. 46.

날 트루먼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공군의 개입을 천명했으며, “이 공격으로 공산주의가 독립국가를 정복하기 위해 전복수단을 이용해 오다, 이제는 무력 침공과 전쟁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¹²⁾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북한의 공격을 기습으로 받아들이고, 소련이 북한군의 공격을 사주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치 않았다. 6월 27일 트루먼이 입장을 밝히자, 영국 내각은 즉각 미국 입장을 지지했다. 그 다음 날 영국도 미국과 유엔에 대한 단결의 상징으로 극동에 있는 영국 해군함대 파견을 결정했다. 애틀리는 7월 23일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남한에 대한 북한군의 침략은 유엔에 의해 침략 행동으로 비난된 바 있다 …… 만일 침략자가 응징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모든 침략자들은 고무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것과 똑 같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며,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머나먼 한국에서 시작된 불똥이 여러분의 집을 태울지도 모르는 것이다.¹³⁾

영국의 결정에는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이 깊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한국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유럽과 중동 등 전략적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지역에 대한 ‘무제한의 군사적 개입(an open-ended military commitmen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애틀리는 7월 6일, 한국 사태로 인해 서구가 좀더 가까운 지역에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상은 향후 한국

12)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Doubleday & Co, 1956), p. 339.

13) Kenneth Harris, *Attle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82), pp. 455-56.

사태의 진전과 관련하여 공동정책수립을 위해 미국과 폭 넓은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¹⁴⁾

미국과의 논의는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극동에서의 적대행위의 제한과 기타지역에서의 소련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영국의 한국사태에 대한 좀더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졌음이 입증됐다. 회담 기간 중 미국은 영국에게 맥아더 휘하에 지상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가급적 많은 나라들의 군대를 참여시킴으로써 유엔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려고 했다. 미 합참의장인 브래들리(Omar Bradley)에 따르면, 영국군의 조기 파견 여부보다도 제스추어가 더 중요했다. 영국은 7월 24일 1개 여단을 유엔사령부 예하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영국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위해 민간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예비역들에게 소집령을 내려야만 했다.

영국합참은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게 될 것을 우려했으며, 실제로 그 가능성이 7월 중순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검토되었다. 8월 초 경에는 남한의 90%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갔으며, 미군과 한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지상군 병력을 즉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맥아더에 따르면, 그의 부대는 하루에 500명씩 병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훈련받은 보병 병력이 절대 부족했다.¹⁵⁾ 이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국군 1개 여단의 파병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었으며, 그것은 나중에 완편된 1개 사단을 보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었다. 영국은 파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으며, 홍콩 수비대로부터 급히 편성된 제27여단이 8월 29일 부산에 도착했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의 군사적 팽창의 위협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트루먼 행정부는 9월에 이르러 'NSC-68'¹⁶⁾을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

14) *Ibid.*, p. 454.

15) MacDonald, *Korean War*, p. 22.

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7월 24일 시넬(Emmanuel Shinwell) 국방장관이 군 예산 증액을 처음 제안한데 이어, 8월 초에는 각의에서 향후 3년간 34억 파운드의 추가적인 국방예산 지출을 약속했다. 병역 의무기간도 18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7월 31일 애틀리는 생산이 소비재 위주에서 전환되어야하고 ‘약간의 레저를 희생해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¹⁷⁾ 한국사태의 충격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는 별 논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유엔과 집단안보체제에 가담하는 문제는 당내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는 노동당 안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한편, 베빈은 소련주재 영국대사인 켈리(David Kelly)와 소련 외무성 부상인 그로미코(Andrei Gromyko)가 이미 7월 초부터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전제로 극동사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한 이후 소련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대만문제와 유엔 의석문제 등을 포함하여 중국에게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는 애치슨에 의해 즉시 거부되었다.

한편, 영국은 대만을 중립화하려는 미국의 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영국해군의 임무를 한국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베빈은 극동에서의 확전과, 특히 유엔과 영연방의 분열을 우려하고 있었다. 인도는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를 지지하여 한국에 야전병원선을 보

16) 1950년 초에 작성된 국가안보 보고서. NSC-68은 소련을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치 독일과 같이 처음부터 팽창주의적인 전체주의 국가라고 정의하고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저항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탄 보유로 소련은 1954년경에는 기습으로 공격을 주도하면서 미국에 대해 범세계적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NSC-68은 모스크바 당국을 다루는 유일한 수단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보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규모의 재군비를 단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50년 4월 조사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지만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을 고려하여 승인을 보류했다.

17) Harris, *Attlee*, p. 456.

냈지만, 네루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구시대의 제국주의로 간주하여 반대하였다. 미국은 그러한 네루를 영국의 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재자 정도로 폄하했다. 반대로, 베빈은 미국의 입장이 국내정치상황과 공화당 우파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 여론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했다.

4. 중국의 개입과 영·미 논쟁

8월 말경 이미 맥아더는 인천에서 적전선 후방으로 상륙하는 반격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울을 재탈환하고 적의 보급을 차단하며, 부산 교두보를 돌파하여 미 8군과 상륙부대 사이의 북한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남쪽에 있는 군사력이 괴멸되면 북한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는 아군을 저지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다.

워싱턴에서는 맥아더도 도박이라고 인정한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이 계획은 합참에 의해 낙동강전선의 피비린내 나는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남쪽에서의 승리에 대한 전망은 미행정부로 하여금 한국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기 4일 전인 9월 11일 트루먼에 의해 승인된 NSC-81/1로 요약되었다. 이것은 북한군을 완전히 격퇴하기 위한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으로서 소련과 중국의 불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맥아더가 예견한대로 인천상륙작전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북한군의 붕괴와 서울의 재탈환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이 김일성을 구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미행정부는 NSC-81/1의 조항에 따른 군사작전 명령에 의거, 맥아더에게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명령했다. 9월 30일 워싱턴은 유엔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영국을 통해 정치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했

다. 이 결의안은 ‘한국의 안정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all appropriate steps be taken to ensure conditions of stability throughout Korea)’과 ‘하나의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수립을 요구했다.¹⁸⁾ 유엔군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 주둔하게 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그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창설될 예정이었다. 소련의 영향력이 제거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 영·미로 하여금 더욱 유엔의 힘을 과시하게 만들었다. 크렘린이 개입하려는 징후가 없자, 베빈은 군사적·외교적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베를린의 경우에서처럼 소련에게 그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¹⁹⁾고 강조하기도 했다.

9월 마지막 주에 이르러 유엔군이 38선에 접근하자, 중국은 북경주재 인도대사인 파니카(K. M. Panikkar)를 통해 더 이상의 전진에 대해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영국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으나, 중국 외상인 주은래가 10월 2일 새벽 취침 중이던 파니카를 불러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개입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을 때 비로소 긴장했다.²⁰⁾ 베빈은 에치슨에게 중국의 개입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문제를 토론하는 유엔 총회에 중국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북진문제에 조심스러워하던 영국합참도 제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휴전선을 즉시 통과해야 할 군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중국 측 반응을 탐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38선을 통과할 의도임을 이미 명백히 했다. 베빈은 영·미관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유화적 입장을 취하여 미국의 대 유럽원조에

18) Farra-Hockley, *Korean War*, 1: 441-442.

19) Callum A.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London: Macmillan, 1986), p. 51.

20) Farra-Hockley, *Korean War*, 1: 216-217.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국전을 제한해야 하며, 압록강 이북 중국으로의 확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10월 3일 동경에서 만일 중국이 개입한다면 북경을 비롯한 중국북부와 만주의 도시들을 폭격할 것이라고 한 맥아더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10월 7일 유엔총회는 한국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틀 후 미군부대는 처음으로 38선을 넘었다. 중국은 즉각 이에 대해 침략행동이라고 비난했으나, 베빈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만일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더라도 그것은 오직 명목상의 소규모 군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민족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영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응을 오관했던 것이다.

10월 15일 트루먼과 맥아더가 웨이크에서 만나고 있을 때 이미 중국군은 압록강을 건넜다. 중국인민의용군(Chinese People's Volunteers)으로 알려진 이 부대들은 전진하고 있던 유엔군부대의 전방 산악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0년 11월경에는 국·공 내전 시 참전경험이 있는 팡덕회(Peng Dehuai)장군 휘하에 20만 명에 이르렀으며, 8만 명의 북한군 패잔병과 게릴라들이 이에 합세하고 있었다. 10월 말경 한국군과의 조우에도 불구하고 11월 초에 그들이 운산에서 미군 1개 연대를 격파하여 미8군이 청천강 이남으로 철수할 때까지도 그들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동시에 중국공군의 미그15전투기가 한국 서북지방 상공에 출현하였다. 맥아더의 첫 반응은 중국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압록강의 철교를 폭격하라는 것이었다. 워싱턴은 즉각 중국 공격을 피하고 압록강 철교남단 북한 쪽 폭격만을 허용하는 지시를 보냈다.

애치슨은 11월 10일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압록강 양쪽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다. 같은 날 영·미 양국은 “한국과 접해 있는 중국의 국경선은 존중되어야 하며 …… 국경지역에서의 한·중 두 나라의 이익은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²¹⁾고 확인한 안보리결의안을

21) Peter N. Farra, 'A Pause for Peace Negotiations: The British Buffer Zone Plan of

지시했다. 동시에 미국 측은 안보리가 중국의 개입에 관한 맥아더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에 중국을 초청하는데 동의했다.

영국 합참은 압록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만주에 대한 폭격과 중국과의 주요 결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럴 경우 소련 공군의 참전을 우려했다. 영국 합참은 북진을 정주-덕천 선, 즉 대략 북위 40도의 ‘한반도의 목(the neck of the country)’에서 멈추고 이 선 북쪽을 비무장지대화할 것을 제안했다.²²⁾ 11월 13일 워싱턴에 전달된 이 안은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비무장지대는 중국이 포함된 유엔위원회의 감시 하에 두자는 것이었다. 일견 그것은 압록강 양쪽에 좁은 지대를 설치하자는 미국안보다 합리적이었으나, 군사적 상황을 포함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즉 유엔군은 이미 제안된 선 위 쪽에 진출해있었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1월 21일 미국은 맥아더에게 압록강을 바라볼 수 있는 능선에서 전진을 멈추도록 지시했다. 중국군이 전장에서 계속 발견되지 않자 그들과 싸우거나 협상하지 않고도 한국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중국군은 운산전투 이후 모두 산악지대로 숨어버려 협상의 기회를 허용치 않는 대신 다가올 결전을 위해 재편성을 하고 있었다.

11월 24일 맥아더는 크리스마스까지 한국전쟁을 끝낼 계획으로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지만, 4일 후 그는 결정적인 중국군의 공세에 직면했다. 맥아더는 즉시 만주 폭격과 국민당 군대의 배치, 중국 본토의 봉쇄, 그리고 원자탄 사용 등 중국과의 전면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트루먼과 애치슨은 소련의 압력에 취약한 유럽으로 인해 극동에서 대규모 전쟁은 피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런 함정에 빠져들기 보다는 한국에서 전쟁이전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12월 8일에 평양이, 그리고 새해 1월 4일에

November 1950’, in James Cotton and Ian Neary (eds),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 p. 68.

22) Farra-Hockley, *Korean War*, 1: 297. 같은 지역을 놓고 영국은 ‘한반도의 목’으로,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허리’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주 33) 참조.

는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으며, 사기가 떨어진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밀려났다. 워싱턴에서는 패배에 직면하여 맥아더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그렇다고 당장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다.

한편 영국군과 영국특파원들은 미 8군의 ‘대규모 적전도피자(the big bug-out)’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미군들은 공황에 빠져, 적과 싸우면서 질서 있게 철수하는 대신 적과 접촉도 없이 너무도 빨리 후퇴하였다. 워싱턴 주재 영국 무관이 경멸조로 말했듯이 미군은 영국군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많이 겪었던 이런 종류의 작전에 경험이 없었다.²³⁾ 철수하는 미8군의 후미 경계를 담당하고 있던 영국군들 사이에는 그들의 동맹국군들에 대한 경멸에 가까운 우월감이 팽배해 있었다.

11월 30일 트루먼은 원자탄 사용도 적극 고려중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펜타곤은 그 가능성을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에 대해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확고한 계획이나, 또한 맥아더에게 핵사용 권한을 위임할 의사는 없었다. 대통령은 미국을 너무 몰아붙이지 못하도록 공산주의자들에게 미리 ‘위장된 경고(a veiled warning)’를 한 것으로 보였다.²⁴⁾ 그러나 그의 말은 워싱턴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1월 30일 하원에서 열린 상하 양원회의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워싱턴에는 도달할 수 없었지만, 런던이나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영국 동부는 공격할 수가 있었다. 76명의 노동당의원들은 만일 만주를 공격하거나 핵을 사용하는 문제에서 정부가 미국을 지지한다면 정부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비상각의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해 애틀리의 워싱턴 방문을 결정했다.

12월 3일 애틀리의 워싱턴 비행은 전쟁 수행에 관한 영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트루먼 및 애치슨과

23) MacDonald, *Korean War*, p. 41.

24) *Ibid.*, p. 42.

의 일련의 회담에서 그는 나토 강화의 필요성과 미군을 최고 통합군사령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 등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미국은 전쟁을 한국내로 제한하고 38선 부근에서 휴전을 유도한다는데 동의했으나, 유엔에서 공산중국에게 의석을 할당하고 대만문제를 유엔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등 양보를 통한 중·소 분리정책에는 반대했다. 미국은 양보는 단지 공격을 합리화시켜주고 공산진영을 단결시켜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내의 전쟁물자 비축문제는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으며, 애틀리는 영국의 재군비계획을 대폭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듬해 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트루먼은 원자탄에 대해서는 단지 결코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하며, 사용 시에는 영국수상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애틀리는 합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미공군기지 관련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 런던으로 돌아오자, 애틀리는 확전을 피하게 되었으며 원자탄 사용에 있어서도 영국의 동의를 보장 받았다고 방미성과를 과장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은 유엔을 통해 휴전을 모색한다는 데는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한편, 런던에서는 맥아더의 퇴각이 너무 성급히 이루어졌으며, 그는 고의로 상황을 악화시켜 한국으로부터 철수 후 중국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1월 8일 애틀리는 트루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루머를 언급하고, 확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루먼과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미국은 자발적으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으나, 군사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감추지는 않았다.

한편, 육군상(the Minister of War)인 스트래치(John Strachy)와 외무성의 영저(Kenneth Younger) 등 소장파 관료 그룹은 보다 독자적인 대미 노선을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유엔에서 미국에 반하는 쪽으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힘에 대한 거부감과 대서양 동맹 내에서의 영국 영향력의 쇠퇴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베반(Aneurin

Bevan), 달톤(Hugh Dalton)과 같은 거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다른 그룹은 충돌보다는 외교에 의해 미국을 자제시키면서 성실한 동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 중국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분열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재무상인 게이츠크(Hugh Gaitskell)도 유사한 노선을 취했다. 애틀리는 가까스로 각료들을 설득하였으며, 2월 1일 영국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유엔 수정 결의안에 투표하였고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다.²⁵⁾

그런데 이 때 썸 한국의 위급한 상황은 호전되어 유엔군이 한국에서 강요에 의한 철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분명해졌다. 애틀리의 미국방문보다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중국과의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향한 길이 열린 것이다. 1950년 크리스마스 직전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장군은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산군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1951년 3월경 그는 서울을 재탈환했으며, 미8군은 다시 38선에 접근하였다. 영국은 북한 쪽으로 대거 다시 월경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미행정부도 38선을 전술적으로 넘는 것을 포함하여 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산악 지역에 재진입하는 것만은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3월 24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게 유엔군과의 협상에 응하던지 아니면 중국항구와 도시에 대한 폭격을 감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은 경악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엔주재 영국대사인 쟈(Gladwyn Jebb)은 만일 맥아더가 유엔이 확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오직 필리핀이나 열대국가들(banana states), 그리고 공화당 극우파들의 여론만을 의식했음에 틀림이 없다”²⁶⁾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인 러스크(Dean Rusk)는 맥아더가 승인 없이 행동했음을

25) Farra-Hockley, *Korean War*, 2: 28.

26) MacDonald, *Korean War*, p. 48.

인정하면서도 장군을 제어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에 따르면, 맥아더에 대한 어떤 조치도 유럽주둔군 문제를 포함한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의회전략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²⁷⁾

그러나 트루먼이 4월 11일 맥아더를 해임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영·미간의 논쟁은 종식되었다. 맥아더가 공화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트루먼은 결국 그를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이 트루먼의 결심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해임 소식을 런던에서는 반겼지만, 죽은 베빈을 대신하여 외상이 된 모리슨(Herbert Morrison)은 각료들에게 너무 공개적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맥아더를 ‘아시아 공산주의에 대해 관대하고 유럽에 집착해 있으며 그리고 영국외교에 의해 막후에서 조종되고 있는 미행정부에 의해 배신당한 희생자’로 간주하고 있던 공화당 우파에 의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²⁸⁾

한편 그 동안 누적되어온 영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재군비문제에서 먼저 불거졌다. 애들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변인은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각은 이미 1951년 1월 25일 1인당 방위비 지출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부담을 영국국민들에게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 향후 3년간 47억 파운드의 새로운 재군비계획을 승인했다.²⁹⁾

1951년 5월 영국은 중국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에서도 양보를 했다. 그 달 초 정부는 홍콩을 통한 고무 수출금지를 선언했으며, 17일에는 유엔이 제안한 일련의 제재를 지지했다. 동시에 모리슨은 한국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대만을 중국에 양보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사실

27)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p. 94.

28) MacDonald, *Korean War*, p. 48.

29) Kenneth O. Morgan, *Labour in Power 1945-195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433.

상 중국이 평화모색을 거부하고 유엔군에 대해 공세행동을 취하는 한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되기는 어려웠다. 영국은 또한 유엔군에 대한 공중 기습 공격 시 만주에 대한 보복폭격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주는 데에도 동의했다. 모리슨은 이것이 사전 협의에 대한 영국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란과 이집트 등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하여 영국군이 개입할 경우에 미국도 영국에게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타협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평화회담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대만정부에 대한 무시라기보다는 곧 무역 경쟁상대로 등장할 일본에 대한 영국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만일 부활한 일본이 중국 본토와 무역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은 당장 영국이 전통적으로 시장을 유지해온 동남아시아에 미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에게 적대행위를 했던 중국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자, 중국을 강하게 하고 일본을 소련 위성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케 하는 불리한 위치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5. 휴전회담과 포로문제

1951년 4~5월에 중국군은 2회에 걸친 대규모 공세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채 격퇴되었으며, 6월에는 유엔군이 38선을 다시 통과했다. 중국군 춘계공세 1단계에서 영국군 글로스터연대(the Gloucester Regiment) 1대대는 중국군에게 돌파되어 한국전 중 최대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전투에서 대대는 중국군 제63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그들의 공세를 지연시켜 서울 외곽에서 멈추게 했다. 글로스터연대는

이 공로로 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³⁰⁾

38선 남쪽에서 중국군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미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위기로 몰거나 북한을 완전 붕괴시키려다 소련이 참전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더구나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 위주로 싸우는 공산군들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은 결국 공군력에 의해 개활지에서 기동하며 적을 격파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웠다. 리지웨이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할 수 있도록 미행정부가 휴전을 모색하는 동안 캔사스/와이오밍(Kansas/Wyoming)선, 즉 38선상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멈추도록 명령을 받았다.

리지웨이가 중공군 춘계공세를 물리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케난(George Kennan)을 통해 유엔주재 소련대사인 말리크(Jacob Malik)와의 비밀 접촉을 통해 휴전을 모색했다. 3주 후 유엔이 마련한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말리크는 38선으로부터 상호 철수를 전제로 교전국들 간에 휴전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³¹⁾ 이것은 베이징당국이 이전에 항상 주장해오던 문제, 즉 대만과 중국의 유엔대표권 문제를 포함한 극동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한국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언급이었다. 소련도 미국이 한국전쟁에 의해 야기된 국제적 긴장을 이용한 독일 재무장만은 피하길 원했다.³²⁾

6월 29일 리지웨이는 방송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게 휴전협상을 위해 원산 만에 정박해 있는 덴마크 병원선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7월 2일 북경방송은 팡덕희와 김일성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7월 8일 개성에서 연락장교들이 만났으며, 이를 후 회담이 시작되었다. 유엔수석대

30) 영국군부대는 중국군의 압력으로 철수하는 미군들의 후위엄호를 담당했기 때문에 희생이 컸다. 리지웨이는 만일 미군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타국군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UN 동맹국들 사이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전투 후에 “우리는 어떤 대대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절대로 다른 영국군 대대 하나라도”라고 반복했다.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p. 219.

31)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p. 265.

32) MacDonald, *Korean War*, p. 55.

표는 조이(C. Turner Joy) 제독이었으며, 북한 측 대표는 남일 대장이었다. 연합군 측 협상은 대체로 미국 측이 주도했으며, 참전국들 중 한국만이 대표를 파견했다. 협상정보 획득을 위해 영국은 미국무성 브리핑과 워싱턴과 동경주재 외교관들 및 펜타곤에 파견된 군사요원들이 입수하는 정보에 의존했다.

그 동안 유엔 및 북경당국과 접촉을 모색해오던 영국은 휴전 협상을 반겼다. 회담은 확전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당 좌파를 제지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영국은 곧 미국과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 모리슨은 한국을 분단 상태로 남게 하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하는 이승만에 대해 우려했으며, 개성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역설했다. 런던주재 미국대사는 국내문제와 중동 위기로 애가 탄 영국정부가 간절히 탈출구를 찾고 있으며, 휴전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이승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개성회담은 시작부터 극심한 논쟁에 빠져 들었다. 처음에는 의제에 대한 합의조차도 어려웠으며, 나중에는 38선으로 휴전선을 삼자는 공산 측 주장 때문에 교착되었다. 그것은 캔사스/와이오밍 선으로부터 유엔군의 철수를 의미했으며, 그럴 경우 서울은 다시 북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현 접촉선을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해결방안을 원했다. 8월 22일 공산 측은 미군 폭격기가 회담을 위해 개성 주변에 설치된 중립 지대에 폭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회담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그들이 9월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대일강화조약에 임박하여 연합군과 미군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9월 11일 워싱턴에서 모리슨을 만난 애치슨은 휴전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은 대만문제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관한 정치적 토의만을 진행할 의사를 강조했다. 모리슨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극동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이 고려되지 않는 것을 서운해 했다. 애치슨은 휴전회담이 실패했을 경우

에 유엔군에게 ‘평양 위 쪽 북한의 허리(the North Korean waist beyond Pyongyang)’³³⁾까지 전진시킬 것과 일본의 재무장 및 추가적인 한국군사단 증강을 제안했다. 유엔군에 대한 대규모 공중공격 시에는 만주에 대한 대규모 보복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상의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유엔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킨 공산 측을 비난하도록 하고, 동맹국들에게는 추가적인 군사 지원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 조치에 적극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

나중에 애치슨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영국의 참여의지는 최소한도의 수준이었으며, 모리슨도 이 모든 대안에 대해 매우 냉담했다는 것이다.³⁴⁾ 모리슨은 영국은 이미 중동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군이 폭격을 당할 경우, 만주에 대한 보복폭격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중국을 러시아의 품으로 가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베빈의 충고를 인용했다.³⁵⁾ 모리슨은 특별한 경우 리지웨이에게 전술적 재량권을 부여하되, ‘북한의 허리’로 전진하기 전에 반드시 영국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영국은 북쪽으로 새롭게 전진하기 보다는 캔사스선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육군을 증강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일본의 재무장에는 영국 여론과 소련의 충격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이었다. 그는 일본군의 한국 내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에 대항하여 중·소 두 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발전소들을 폭격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홍콩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여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보다는 경제제재 조치에 그것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33) Ibid., p. 58.

34) Dean G.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 W. Norton, 1969), p. 538.

35) Ibid.

그러나 애치슨과 국무성관리들은 미국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영국과 협의토록 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대했다. 그가 워싱턴을 떠나자, 곧 주미 영국대사는 공군기지문제는 ‘영·미 양국정부가 합동 결정해야할 문제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³⁶⁾ 비상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방식이었으나 영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한편, 모리슨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에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보수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보수당은 하원에서 노동당 295석과 자유당 6석에 비해 321석을 얻으면서 다수당이 되었다. 10월 26일 에틀리는 사임했으며, 신임수상으로는 처칠이, 그리고 한국문제를 담당할 외상에는 이든(Anthony Eden)이 취임했다. 영·미 ‘특별한 관계’의 창시자인 처칠은 집권하자마자,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의 전통적 영·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이 재정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한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당으로부터 물려받은 재군비의 짐을 줄여야만 경제가 안정될 수가 있었다. 결국 처칠은 가장 저렴한 핵 억제정책을 채택했으며, 영국은 1952년 10월 원자탄 실험에 성공했다. 처칠은 만주 폭격문제를 과거 식민지에 대한 응징원정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등 중국에 대해 19세기적 경멸감을 갖고 있었다.³⁷⁾ 때때로 처칠은 영국은 미국이 중동에서 지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자유 재량권을 당연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소위 전략적 책임의 분담을 주장하곤 했다.³⁸⁾

새로운 외상인 이든도 마찬가지로 영·미관계를 주적(main enemy)인 소련에 대항하는 영국 안보의 기본이 되는 틀로 간주했다. 또한 그도 중국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에틀리 정부가 공산체제를 승인한 속도를 비판해왔다.

36) MacDonald, *Korean War*, p. 59.

37) *Ibid.*, p. 61. 또한 처칠은 “도대체 영국의 어떤 보수주의자가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좋아한단 말인가?”라고 말하는 등 공산중국에 대해서 동정적이지 않았다.

38) *Ibid.*

그러나 수상과는 다르게 미국 내의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1952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극동에서 미국의 자유재량권을 주는데 반대했다. 확전은 국내에서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겨우 ‘근소한 다수(narrow majority)’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고 영·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고, 또한 이미 어려워진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월 25일 휴전회담은 판문점에서 재개되었다. 다음 달에는 중국과 북한이 38선이 아닌 현 군사접촉선에 기초해 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 결과 캔사스선은 고스란히 유지되었고 기습공격으로부터 서울의 안전이 보장되었다.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휴전감시방법에서 양보하는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휴전을 깨뜨릴 경우 직접 보복을 경고함으로써 보장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제재(the greater sanctions)’ 선언으로 알려진 경고가 구상되었다.

11월 28일 로마에서 열린 나토회의에서 이튼을 만난 애치슨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만주폭격이나 해안봉쇄 등 특별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미 합참은 항구와 철도의 파괴, 강 어구의 기뢰부설 등 중국 수송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을 구상했다. 이튼은 영국이 대규모 제재선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영국과의 사전 협의를 배제한 채 단독 행동에 나설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홍콩에 대한 보복이나 세계대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에는 지지하길 꺼려했다. 특히 영국 합참은 해상봉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으로부터 조차한 여순 항과 대련 만을 사용 중인 러시아 함정과의 충돌 위험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튼은 폭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제재’ 선언 문제는 영국이 미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가 되었다. 12월 말경 미국은 자극적인 표현이 없는 온건한 수정문안에 동의했다. 이 새로운 초안은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깨뜨린다면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여 “아마도 한국 국경선 안으로 적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³⁹⁾이라고 언급하였다.

1952년 1월 초 처칠과 이튼은 트루먼 및 애치슨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노동당집권 시 계획된 영국 내 미 공군기지 사용에 대한 미국의 자유재량권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원자탄 사용문제에 대해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는 미국은 적절한 목표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펜타곤이 야전에서의 원자탄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미 지난 가을 한국에서 일련의 시험을 했음을 숨겼다.

만약 휴전회담이 결렬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은 중국 내의 군사적 목표에 대해 폭격을 감행하고 유엔 차원에서 무역봉쇄를 실시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대만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될 경우, 이는 아시아 전반에 걸친 패닉 현상으로 이어지고 일본을 서구 영향권의 거점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했다. 미국은 아울러 펜타곤이 산출한 수치에 의거, 홍콩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처칠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티토식 공산주의의 징후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데 동의했다. 그는 또 대만의 포기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휴전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튼도 국민당정부를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칠은 국경선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압록강을 건너 폭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 그는 만일 회담이 결렬된다면, 그 대응은 신속하고 결연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영국은 재군비 부담의 경감 필요성을

39) M. L. Dockrill, 'The foreign Office, Anglo-American Relations and the Korean Truce Negotiations July 1951-July 1953', in James Cotton and Ian Neary (eds),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 p. 104.

강조했고 필요한 원자재 공급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 처칠은 소련과의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동문제에 관해서 그는 이집트·이란 문제와 중국문제를 거래하는 앞서의 아이디어를 양보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원했지만 긍정적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방문에서 돌아온 처칠은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맹종했으며,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그가 미 의회에서 행한 연설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더욱 가열되었다. 노동당은 그러한 동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트루먼으로 하여금 성급한 행동을 할 구실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2월 말에 이르러 노동당은 수상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칠은 노련하게 과거 노동당정부가 찬성했던 중국에 대한 보복폭격 작전계획을 폭로함으로써 야당의 예봉을 피해갔다. 즉 자신은 이미 과거정부가 행한 미국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1952년 봄 휴전회담은 포로문제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문제는 적대행위의 종식과 함께 모든 포로의 자동적인 송환을 규정한 1949년 제네바 협약 118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서명 당사국들이 아니었지만, 북한은 1950년 7월에, 그리고 중국은 1952년 7월에 각각 제네바 협약내용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최초 서명국이었던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초기에 제네바 협약의 준수를 선언했다. 그러나 1949년의 협약은 국가 간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동족끼리 적대적으로 분열된 소위 ‘국제적 내전(an international civil war)’⁴⁰⁾ 성격의 한국전을 염두에 두고 구상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많은 포로들이 한국과 대만으로의 망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과 두 개의 중국’의 존재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반공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118조 적용을 거부하고 포로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송환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의 입장

40) MacDonald, *Korean War*, p. 70.

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것이었다. 선거를 앞둔 트루먼 입장에서는 반공포로의 강제송환은 이념적으로 모순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서 유지해온 반공체제를 희생해서 북한과 중국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공산 측은 포로들을 전쟁이 끝난 후 한국과 대만 측에 넘겨주기 위한 사기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자기 측 인원의 절반이상이 명백하게 변절해버린 것을 의미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결과 판문점 회담은 1952년 5월에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영국은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포로관련 논쟁을 지켜봤다. 영국은 무엇보다도 북한 측에 의해 영국과 영연방 포로들에게 가해질 보복을 우려했다.⁴¹⁾ 회담이 지체될 경우 선거의 해를 맞이한 워싱턴이 군사적으로 더욱 강경하게 나올지도 몰랐다. 영국은 미국 측의 접근방식에는 인도주의적 요소와 함께 정치 이데올로기적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당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미국은 대만으로 송환하기 위한 거제도의 중공군 포로에 대한 사상 재교육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에서는 적의 수중에 놓인 자국군 포로들에게 추가적으로 가해질 고통의 대가로 장개석 군대의 강화를 바라보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⁴²⁾

그러나 이들은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 반대하기를 꺼려했다. 수상과 외상 모두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타회담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측에 있던 모든 러시아인들의 송환 약속으로 야기된 뼈아픈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⁴³⁾

한편 5월 초에 중국외상 주은래가 판문점회담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

41) 영국군 포로는 총 1,060명이었으며, 그 중 978명이 송환되었고, 82명은 죽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었다. Farra-Hockley, *Korean War*, 2: 486.

42) MacDonald, *Korean War*, p. 72.

43) 당시 많은 러시아인들은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거부하여 자살을 택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자국인들에 의해 테러 등 보복을 당했다.

해 영국의 영향력 발휘를 요청해왔다. 영·미간을 이간시키려는 기도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영국은 비밀협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튼은 인도의 외교 방식을 불신하고 있던 애치슨을 일단 설득했고, 곧 중국 측에게 제시할 협상안에 대해 워싱턴과 토의하기 시작했으며, 6월 초에는 향후 협상방향을 담은 제안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석방된 포로를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에 대해서는 중립국위원회와 교전 당사국들을 대표한 적십자 요원들이 재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6월 23일 극동 최대 규모인 압록강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북한지역 발전소들에 대한 일련의 공중공격이 뜻하지 않게 영·미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수풍발전소는 북한 뿐 만아니라 중국과 소련에도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주로 미 공군기에 의한 강력한 공습은 공세에 노출된 미 지상군의 희생을 줄이고 관문점에서 공산측을 협상 타결로 몰고 가기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수풍에 대한 기습 폭격이 있자, 중국은 즉각 이를 새로운 형태의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라고 비난하면서 영국과의 비밀 포로협상을 중단시켰다. 수풍에 대한 공격은 영국에서도 커다란 소동을 불러왔다. 반대자들은 미국의 행동은 영국과 협의 없이 전쟁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이번 폭격은 일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옹호하고 정책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각료들도 반대파의 비난에 가세하고 중국과의 포로 협상 전망을 어둡게 만든 미국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다. 6월 24일 워싱턴 회담에서 영국대표인 로이드는 중요한 정치적 내용과 관련된 군사적 결심에 대해서 동맹국간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펜타곤이 영국을 무시하려드는 경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튼도 수풍 발전소 기습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치슨에게 완곡하게 당부했다.

왜 미국이 영국에게 사전에 기습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지는 분명치 않

다.⁴⁴⁾ 영국은 1951년 9월 모리슨-에치슨 회담 시 수풍발전소 폭격에 동의한 바 있지만, 그것은 휴전협상이 깨질 경우에 한해서였다. 다행히 6월 27일 미국이 클라크 휘하에 영국군 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승인했을 때 쯤 위기는 고비를 넘겼다. 런던을 방문 중이던 에치슨도 영국 의회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전에 영국과 폭격에 대해 협의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6. 휴 전

그 해 10월 8일 미국이 휴전회담을 연기한 후, 이튼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총회에 참석 중 유엔주재 인도대사인 메논(Krishna Menon)이 제안한 해결안을 다시 지지했다. 그의 계획은 영국이 주은래와 중국주재 인도대사인 파니카와 비밀협상에서 논의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은 휴전 후 중립국 위원회에 넘겨져서 강제적인 방법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통해 무기한 설득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총회 의장인 캐나다의 피어슨(Lester Pearson)도 지지를 한 메논 안은 그러나 에치슨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에치슨은 이 안은 유화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 ‘음모’에 가담한 영국과 캐나다를 비난했다. 그는 포로들이 송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으로 억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강제송환이라고 비난했다. 에치슨은 영

44) 미국이 비밀로 했던 진짜 이유는 아마도 1951년 5월에 있었던 영국 외교관 버게스(Guy Burgess)와 매클린(Donald MacLean) 두 사람이 모스크바로 망명한 사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풍은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와 매우 지근거리에 있어서 만일 공산 측이 사전에 공격을 알았다면 공격 중인 미군기 조종사들의 희생이 매우 클 수도 있었다. 또한 영국이 사전에 알았다면 작전에 반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나중에 알려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국이 미국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나토 참가를 재고할 것임을 시사하며, 이번 기회에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애치슨은 공개적인 영·미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메논 수정안을 수용했다. 1952년 12월에 메논 안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포로 문제 해결안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9월에 미국은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하자, 처칠은 미국이 이 신무기를 이용하여 소련을 선제공격을 할지 모른다고 크게 우려했다. 더구나 영국 내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이용할 경우 영국국로서는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었다. 처칠은 야당시절부터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영국은 공화당 우파와 군부 매파의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미 행정부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튼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상자 수를 최소한으로 낮추면서 '소극적인 전쟁(the static war)'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1953년 1월에 수상은 트루먼 행정부와 고별인사를 나누고 뒤를 이을 새로운 정부에 영향력을 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⁴⁵⁾ 마침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가 한국전 상황을 점검하고 막 돌아왔기 때문에 클라크장군의 확전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전 조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행정부와의 관계는 출발부터 불편했다. 1953년 2월 2일 아이젠하워는 미 7함대는 더 이상 대만 해협을 중립화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화당 우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로 국민당의 본토 침공 길을 열어 놓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중국당국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으나, 이튼은 영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인도를 경악케 하며 야당과의 문제들을 복잡하게

45) 1952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대로 공화당 후보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당선되었다. 영국은 그를 제2차 세계대전 시부터 영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만드는 이러한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이에 미국은 딜레스를 런던에 파견하여 미국은 장개석의 본토 공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다짐 했다.

이튼은 1953년 1월 국제적십자사 총재와 만나 상병포로들의 우선적인 교환을 제안했다.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2월 22일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제안했다. 동시에 이튼은 소련과 접촉하여 1950년 6월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 포로가 된 영국인 목사를 포함한 민간인 피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3월 초에 이튼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딜레스와 회담을 가졌다. 딜레스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주 폭격과 북한지역 ‘허리’ 부분까지의 복상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군사작전이 강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튼은 폭격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영국과 상의해 줄 것을 미 측에 요청했다. 그는 또한 소련과의 충돌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중국 해안 봉쇄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딜레스는 이튼과의 대화에서 결코 정직하지 않았다. 이미 2월 초에 아이젠하워는 군사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탄 사용을 심사숙고했으며, 봄에는 펜타곤 입안자들도 일련의 대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움직임들은 영국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젠하워는 무엇보다도 전쟁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튼이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3월 5일 스탈린이 갑자기 죽었다. 3월 15일에는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인 말렌코프(Georgi Malenkov)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발언했다. 주은래가 스탈린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3월 28일 공산 측은 유엔 측의 상병포로교환 제안에 동의했다. 이를 후 그는 북경 라디오를 통해 모든 비송환 포로들을 중립국에 인도하여 그들의 처리문제를 논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⁴⁶⁾ 이러한 성명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 측에서도 공개적인 지지성명이

46) 90년대 초 공개된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스탈린이 북한으로 진입하는 중국군에 대한

나왔다. 공산 측은 1952년 10월 이후 미 측에 의해 중단된 휴전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한은 4월 8일 민간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송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미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판문점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한국문제의 전망에 좀 더 신중했으며, 공산 측이 신뢰의 증거로 상병포로들의 교환에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공산 측 성명에 대한 공식 반응에서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953년 4월 26일 판문점 회담은 재개되었다. 긴 설전 끝에 북한 측 대표인 남일은 5월 7일, 휴전 후 비송환 포로들은 스웨덴·스위스·폴란드·체코 그리고 인도로 구성된 중립국위원회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전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위원회는 4개월 동안 송환거부 포로들을 관리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양 측은 각각 자기 측 포로들에게 본국으로의 송환을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후에도 남아있는 포로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조건 하에 열리게 될 정치회담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이러한 제안은 1952년 12월의 유엔 측 안에 근접한 것으로서 이는 공산 측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제안은 종전 후 송환 거부 포로들에게 신속한 자유를 허용치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만일 포로들이 공산 측의 설득을 받아들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들은 무기한 억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행정부는 인도를 불신하였으며, 그들이 폴란드와 체코에 가담하여 위원회 내에서 공산 측이 다수를 차지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이승만은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판문점 회담 재개를 결정하는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분단 상태로 놓아두는 해결방안을 받아들여느니 차라리 한국군을 유엔군 휘하에서

공중 엄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한 전쟁개입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을 중국 측에게 떠넘긴데 대한 모택동의 분노가 중국이 휴전에 동의하게 된 원인의 하나였다고 한다. Farra-Hockley, *Korean War*, 2: vii.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고, 한국인 송환 거부 포로들을 중립국위원회에 인도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5월 13일 미국은 공산 측의 제안에 대해, 송환거부 포로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고 이승만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중립국 위원회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인 송환거부 포로들은 휴전과 동시에 석방하고 중국인 포로들만 위원회에 인도하되, 그 수용기간도 6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비 병력은 체코군과 폴란드군을 제외하고 인도군으로만 구성토록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로 인해 4일간 회담을 거부했다.

판문점에서의 이러한 충돌은 영국 내에서 커다란 동요를 불러왔다. 휴전 회담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공산 측도 1952년 12월 유엔 측이 동의한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양보를 한 마당에 워싱턴이 포로송환의 세부적인 문제로 회담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협상이 공화당 우파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어리석고 융통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그들의 타협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네루에게서 전해들은 처칠은 워싱턴 당국에 항의했다. 비강제적 송환원칙이 지켜지는 한 영국의 관점에서 보면 세부 사항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대에 부딪힌 미국은 중립국위원회가 한국군과 중국군의 모든 송환거부 포로들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은 5월 26일 유엔군사령부의 최종 입장으로 판문점 회담에 공식 상정되었으며, 9일 후 공산 측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겨우 마지막 순간에야 미국의 협상 입장이 바뀐 것을 알고 격노하여 즉각 판문점에 나가 있는 한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그는 국운을 걸고서라도 한국 홀로 싸우겠다고 위협하며, 6월 18일 포로수용소 한국군 경비대에게 한국인 송환거부 포로들을 석방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영국은 이승만의 방해에 분노했다. 처칠은 7월 3일 이렇게 불평했다: “만일 내게 권한이 있다면, 나는 유엔군을 해안으로 철수시키고 이승만을 중

국에게 맡기겠다(혼자 싸우도록 놔두겠다) …… 한국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나는 74세가 될 때까지 결코 피비린내 나는 그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⁴⁷⁾ 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쟁은 다만 힘의 논리에서 러시아와 협상하는 기회를 서구에 제공하고 미국의 재군비를 촉발시킴으로써 이미 그 목적에 기여했던 것이다.⁴⁸⁾ 한국 지도자가 이런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개인 전문에서 처칠은 유엔군에 의한 이승만의 체포 또는 제거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의 분노는 많은 외무성 관리들의 공감을 얻었다. 유엔주재 영국대사인 잭(Jebb)은 “이 늙은 도적이 공산주의와의 성전에 미국과 우리들, 그리고 서구 전체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⁴⁹⁾고 말했다. 그러나 처칠과 외무성 관리들도 깨닫고 있었듯이 모든 것은 미국인들의 손에 달려있었다.

이승만의 소위 ‘반공포로석방’사건은 런던과 워싱턴 사이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승만은 결국 미국의 설득으로 드디어 7월 중순경 휴전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결단은 아마도 한국군에 대한 중국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한국군의 단독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지만, 휴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다. 대신 그는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과 전후 미국의 경제원조 약속 등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휴전협정은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인되었으며, 이로써 현 전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따라 전투가 종식되었다. 다음 날, 영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대규모 제재’ 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을 부추기거나 유엔의 휴전협정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공개적인 위협적 표현은 피했다.

47)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p. 187.

48) MacDonald, *Korean War*, p. 90.

49) M. L. Dockrill, ‘The foreign Office’, p. 187.

처칠 정부를 위해서는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의 휴회기간을 이용해 발표하는 배려를 했다.

7. 맺 음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는 영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미간의 특수한 협동관계는 유럽 쪽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한국에 관한 영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태 발전에 직접적인 역할이 없었으며, 한국문제는 1950년 6월 이전 18개월 동안 내각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제한된 '경찰행동(police action)'이었으면서도 범지구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냉전을 군사화 시켰으며, 국제적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시켰다. 북한의 공격이 있는 지 수 개월 안에 미국은 서독군의 나토군 통합을 제안했고 1954년경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대규모의 재군비계획을 출범시켰다. 1950년 말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하자, 트루먼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미국의 재군비는 가속화되었다. 영국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사태에 끼어들었다. 한국전 참전은 처음에는 영국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었지만, 승리가 멀어지고 재무성이 국가의 능력을 웃도는 재군비예산 지출을 계획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전후의 경제회복은 지연되었고 1951년도에는 재정적자 위기까지 맞이했다. 노동당 정부의 무기력과 정부 내의 불화 등 정치적 영향은 지대했다. 6개월 후 애틀리의 노동당은 처칠의 보수당에게 패배했다.

한국문제는 영·미 동맹에도 마찰을 가져와 양국관계는 1950/51년 겨울에 이르러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의 여론이 매카시(Joe McCarthy)

상원의원으로 상징되는 일방적 반공주의의 영향 하에 놓인 것처럼 보이자, 영국도 '특별한 관계'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증대되었다. 1951년 봄 일단 그 위기가 지나가긴 했지만, 오판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을 확전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1953년에 이르러 처칠은 한국전쟁의 휴전이 국제적 긴장과 세계대전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진영 간의 보다 폭 넓은 화해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팽팽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영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힘의 불균형을 절감했다. 애틀리와 그 후계자인 처칠은 중요한 고비마다 실망해야만 했다. 심지어는 중국의 개입 이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미국의 원자탄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요구조차도 미국에 의해 무시되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얻은 것이라곤 영국 내 미 공군기지 사용에 관한 모호한 규정 정도였다.

영국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매번 미국의 입장을 따라야만 했다. 대안이라곤 미국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거의 효과도 없이 영국의 영향력만 소모시킬 뿐이었다. 영국은 미국의 행위를 만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도 충돌보다는 차라리 협조하는 것이 미국에게 그나마 온건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리와 처칠 모두는 이러한 과정에서 거둔 조그만 결과를 과장해서 이용했다.

영국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이 극동에서 취해온 기존의 정책이나 행동을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1950년 12월 잘 알려진 애틀리의 워싱턴 방문이 세계를 확전으로부터 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얘기일 뿐이다. 한국전의 확전을 막은 것은 애틀리의 개입이 아니라 당시의 군사적 상황의 안정 때문이었다. 영국의 외교는 국력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좌절되었다. 극동에서 영·미간의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영국은 유럽에서의 소련의 봉쇄와 재군비를 위한 재정적 지

원을 궁극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충성스런 동맹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동에서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던 처칠의 기대도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모두 이란과 이집트에서 위협받던 영국의 위상을 지원해주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점증하는 이 지역 민족주의 운동과 타협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을 뿐이었다.

영·미간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 항상 타협을 모색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한국전쟁은 자신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인을 인도하고 있다는 영국의 환상을 일깨워주었으며, 1956년 수에즈 사건 전에 이미 대서양 동맹 내에서의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의 영국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한국전쟁기간 내내 3년간 한국에서 싸웠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감사해야 하겠지만, 영국은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영·미동맹 강화와 공산주의 공세 저지라는 커다란 목적을 위해 싸웠을 뿐, 처칠의 언급에서 보듯이 한국의 희망이나 입장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원고투고일 : 2006. 4. 20, 심사완료일 : 2006. 6. 5)

주제어 : 6·25전쟁, 영·미 '특별한 관계', 중국인민의용군, 휴전회담, '대규모 제재' 선언

<ABSTRACT>

The British Role in the Korean War

Won, Tae-jae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was more evident in Europe than in the Far East, where the United States tended to act unilaterally, a reflection of the decline of British power in the area. As for Korea, Britain played no direct part in the developments which set the stage for war, and the subject was never discussed by the cabinet in the eighteen months before June 1950.

Although the Korean War described as a limited 'police action', it had global consequences. It militarized the cold war and raised international tension to new heights. Within months of the North Korean attack, Washington had proposed the integration of West German troops into NATO and embarked upon a massive rearmament program designed to pu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a position to win a global war with Russia by 1954. When China intervened in Korea at the end of 1950, Truman proclaimed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and American rearmament was accelerated.

Although the Korean War at the beginning was a popular cause, the mood rapidly shifted when victory receded and the Treasury tried to budget for a rearmament program beyond the country's capability. Recovery was delayed and Britain entered a new balance of payments crisis in 1951. The political consequences were dramatic, provoking dissension in the Labour Party and the fatal weakening of already tired government. Six months

later Attlee was defeated by the Conservatives under Winston Churchill.

Korea also produced friction in the Anglo-American alliance. As the country faced the possibility of global atomic war, the feeling grew that Britain must assert its position within the 'special relationship'. But Britain came up against the inequalities of power within the 'special relationship'. Britain in any case had little choice but to follow the US lead. Neither was able to regain a veto over American use of the atomic bomb, an issue which became urgent after China intervened, and despite their best efforts achieved only an ambiguous formula covering US air bases in Britain.

There is no evidence that British pressure prevented the Americans from adopting any course which they might otherwise have taken in the Far East. It is not fact that Attlee's famous visit to Washington in December 1950 saved from a wider war. It is the stabilization of the military situation and not Attlee's intervention which kept the Korean War within bounds. British diplomacy was frustrated by the realities of power.

It was dangerous to emphasize Anglo-American differences in the Far East because Britain ultimately depended on the United States to contain Russians in Europe and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for rearmament. As for Churchill's hope of securing American backing in the Middle East in return for acting as a loyal ally in Asia, he was to be disappointed.

The Korean War exposed British illusions about guiding the American colossus and revealed the shift towards US hegemony within the Atlantic alliance.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rmistice Talks, The 'greater sanctions' statement